



##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2월 발행 (제 58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100엔 (배송료 포함 200엔)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

목차:

◎권두 메시지 '교사에 의한 재앙' 예레미야

◎간증 '마음 움직이기를 습관으로'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권두 메시지>

### '교사에 의한 재앙' by 예레미야

**야고보서 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번에는 "교사에 의한 재앙"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교사에 의한 재앙에 관한 기재되어있는 등 말, 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등이라는 의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기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해서 그것은 "**표에도 뒷면에 문자가 적혀있는 두루마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성경 테이블의 설명은 어디에도 교사에 의한 재앙 등 기재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의 뒤의 설명을 본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교사에 의한 재앙에 대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죄"란 무엇인가?>

교사에 대해 기재되어있는 성경 구절은 모두의 야고보서입니다.

### **야고보서 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교사는 엄격한 심판을 받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이상, 그것은 걸쳐 값없이 엄격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어려울까? 라고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교사는 지옥, 지옥까지 떨어지게 되면 다음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 **마태복음 23:29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 **23:33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은 그 당시의 교사이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즉 그들은 당연히, 지옥,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면 선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교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지옥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서운 결론이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상, 현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교사들은 것이라고 하나 지옥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 하셨다. "뱀 회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에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뱀" "독사"는 에덴 동산의 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하와를 미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정말 그녀를 영원한 생명의 나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이러한 위선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라고 칭하면서 그 열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거짓 교리를 말하고, 그 결과 그들에게 순종 민중은 모두 영생에서 분리되는, 따라서 이러한 교사들은 "뱀" "독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뱀" "독사"는 귀여운 비둘기와 밤비와 달리 무서운 생물이며 물리는 경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음의 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뱀, 독사의 자식'이라고 거짓 교사에 빠져 그 교리를 통채로 삼켜 간다면 그런 회중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도 말했다.

### **마태복음 23:15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들은 곧 위선 교사에 순종하며 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과로 천국은커녕 지옥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사에 의한 재앙이라는 것은 교회에 존재한다는 것, 또한 그러한 재앙을 초래 교사는 영생을 얻기는커녕 스스로도 엄격한 심판, 지옥의 심판에 직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현대의 교사에 의한 재앙>

그런데, 현대에 사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교사에 의한 재앙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것일까요? 이러한 것은 현대에서는 이미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란도전서 10:11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은 말세에 임하는 우리의 교훈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시대의 교사들의 실패 재앙 심판에 대해 적혀있는 것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연구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계명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즉 현대의 교사도 만약 위선적인 행보를 한다면 과거의 그들처럼 회중을 미혹 지옥으로 인도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직행 할 우려가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배우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불행히도 성경 어디에서도 교사나 목사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등이라고 확실한 보증을 하는 부분 것 없이 전무이므로 성실하게 이 것은 생각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가 재앙이 될 이 것은 오늘날에도 진실이며, 예를 들어 가톨릭 교사인 로마 교황과 사제들의 말씀은 신자에 있어 재앙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맹신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 나라에 넣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은 너무 과학적이므로 부정 할 수 없다 (창세기 신화?)라고 하며, 또한 성경에는 실수가 실수가 없는 것은 로마 교황의 말씀에만 등과 톤 데모없는 교리를 이야기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사에 따라 하늘 나라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거짓 교사도 그들에게 현혹되는 회중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게헨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야고보서 부분을 살펴 보자.

**야고보서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서는 "만일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라며 교사의 봉사에서 특히 말에 관한 일에 실패나 실수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는 이 수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아무리 조심해도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실패도 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3:3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3: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큰 말을 제어하는 작은 재갈 이것은 큰 교회 전체지도 교사를 비유 한 것입니다. 또한 대형 선박을 당신의 작은 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3: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기관이다 혀는 말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교사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큰 몸, 즉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은 영적인 일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혀 인 교사가 악령의 유혹에 들어갈 때 그 피해는 심대이며, 교회 전체가 악령의 유혹에 들어갑니다. "보라. 저렇게 작은 불이 저렇게 큰 숲을 태웁니다."는 이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 **3: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 즉 악령에 현혹 된 교사에 의해 교회 전체가 오염되고 결국 지옥 불에 타게 될 것까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것은 지금 현실에 오순절 카리스마 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분별없는 교사에 의해 귀신 인 성령의 제 3 물결의 부흥과 베니힌, 로드니 하워드 등의 악령 인 그릇이 교회에 소개되어 많은 기독교인이 귀신의 불에 있다 합니다.

### **3: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 **3: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에서는 혀, 교사를 통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교황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 주이다 등 성경에 반대하는 터무니없는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 **3: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 **3:10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 **3: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 **3: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는 교사의 문제점으로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모두 나올 수 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물과 쓴 물이 같은 장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은 비록이며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단물은 성령의 비유이며, 쓴 물은 귀신의 비유입니다. 즉 같은 한 사람의 교사의 메시지는 어떤 때는 성령이 내려, 어떤 때는 귀신이 내려진다는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교사가 위선적이며 행보가 잘못된다면 그 메시지를 통해 악령적인 것이 내려 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는 교리나 지식적인 것만 떠올려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성경은 메시지를 통해 영혼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 일인지 종종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 귀신인 것이 내려 질 위험에 대해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 **3: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 부분도 교사의 오류나 실수에 대해 이야기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교사가 가지는 "쓴 질투, 적개심 자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 간의 질투와 적개심 자랑 등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전망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와 적개심 먼지가 교리를 향해 "큰 저쪽를 공공거리게 주자" "아무도 모른다 교리를 말해 줘라"등으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터무니없는 교리를 말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유죄입니다.

### **3: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 **3: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그 "획기적인 교리"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땅이 세상에 속한 귀신에 속하는 가르침임을 알아 봅시다. 악령에 속하는 가르침은 지금의 교회는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나의 이해는 그 때 다가오는 것은 그 환난 전에 휴거 설 (이단계 휴거 설) 디스 펜 보호기 프로그램주의입니다. 이들은 19 세기에 영국의 J.N. 더비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온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디스 펜 보호기 프로그램주의는 한마디로 시대 구분 것 같고, 교회 시대는 일시적인 것으로, 그것은 교회의 휴거와 함께 끝나는 그러면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시대에는 이미 교회 존재하지 않는 다음 시대에 있는 끝 시대의 주역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이며, 환난 시대의 고난은 모두 유대인이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기독교에 있어 상당히 머리 투성이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모원려한 귀신의 가르침이며, 이러한 사기를 진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아무도 종말의 등 진심으로 걱정 없이 준비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종말 대비를 무너뜨리는 위해 마련된 같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다**

**<성도에 한번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유다는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울 것"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1: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유다가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재림에 대해 유다와 초대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계속하려고 싸우고 있었다 있을까요?

이것은 초대 교회 시대의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한다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도나도 모름지기 이른바 '환란 후 휴거 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누구 하나 환난 전에 끝한다 등의 이상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환난 전에 휴거 설을 수용 기독교인은 불행히도 다른 유다가 말하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고"않았고, 반대로 그의 말 "몰래 잠입해왔다"는 이단 교리에 패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이러한 점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음미 해 행보합시다. 왜냐하면 반복하지만, 교사에 대한 심판은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단 교리를 전파하고 회중을 멸망에 미혹 교사는 그야말로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위 부분에서 "사람들이 몰래 숨어 들어가 왔기 때문입니다."로 몰래몰래 이단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을 받아 들인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조작한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상과 환난 전에 휴거 설, 두 단계 휴거 설의 이단에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전에 휴거 설을 받아들이고 그 행보가 경건하게 된 사람 등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구나 자신도 기독교인이라면 환난 전에 들 수 있다, 그리고 교리는 많은 기독교인의 행보를 경건과 은혜에서 분리 오히려 방종이나 제멋대로 행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사이비 교리가 확산되고 경건한 기독교인은 모두 파괴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아아, 시대는 변화하고 예전처럼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운다"기독교인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통을 이어 받아 이를 위해 계속 싸우고 싶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 설의 진실을 전파 들어갔다

이단 J.N. 더비

'마음 움직이기를 습관으로'

---

지난해 12 월 오전 예배 메시지 야고보서 통해 가르쳐 주신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곳의 말씀을 살펴 보자.

**야고보서 2: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2: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의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인이 어떻게 전해지고 하거나 생각하거나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기에서 야곱은 "믿음도 만약 행이 없었다면 그냥 죽은 것"이라고 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 다음을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되어 있었습니다.

15 절에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뭔가가 아니라는 때 나누거나 하여 그것을 다 가도록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록 신앙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가 없다는 때 영생에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편지를 쓴 것은 야곱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무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좋은 행실은 불필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하여 다음 성구를 통해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 10:25 ○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0: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10:27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8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실행"할 "영생"을 얻는 점입니다. 이 점에 현혹되거나 다른 것을 잡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성구에서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18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불행히도,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즉 말씀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해 갑시다.

이상을 예배 메시지에서 예레미야 목사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만, 최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해 갑시다."말씀에 저도 특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에 관해서 허리가 마감 버리거나 짐이 무겁게 느끼거나 할 우리의



타고난 성격에 깃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쓰고 있는 나도 남의 것을 아무것도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잠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습관이 될거야"라는 식으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지인 분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 전에 양치질 습관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밤 치아를 닦지?"라고 말해, 그때부터 취침 전에 양치질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지 못해 같았지만, 그러나 반년이지나 일년이지나, 그리고 지금은 자기 전에 닦지 침착 바닥에 착용 없다고 할 정도까지 습관화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의 뜻을 수행 할 몸이 도착 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 습관을 해 나가면 좋은 것이?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위하여 어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거나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점점 그것이

몸에 익숙해 져 나가게 되고, "뜻을 하지 않으면 왠지 기분이 나쁘다, 불안구나" 라고 하는 바람에 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그대로 평생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면, 그 연장선상에서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뜻을 느꼈다면 꼭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도 이 말씀도하지 않는다는 때 방금 예레미야 목사의 메시지는 없지만, "영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소개의 말씀에 **"믿음도 만약 행이 없었다면 그냥 죽은 것"**이라고 적혀 있듯이, '죽음'은 '죄'와 '멸망'의 것을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어도, 혹은 믿음을 가지고 행보를 하고도 사후 빌어 먹을 결말을 맞이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점은 마음에 두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빕니다.